



[라이프]  
농심·삼양식품  
생산력 증대 구슬땀  
라면시장 왕좌 도전  
니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메트로신문 창간20주년 기념 감사조찬행사·작은 음악회

# 20년 네트워크 발판 언론의 룡린, 기업-독자 윈윈 그린다



- 1 메트로미디어 8기 신입기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메트로 창간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메트로의 새로운 슬로건을 발표하고 있다.
- 2 메트로신문 창간 20주년 기념 작은 음악회에서 메조소프라노 최수현이 공연하고 있다.
- 3 색소폰리스트 구민상이 메트로 신문 창간 20주년 기념 작은 음악회에서 연주하고 있다.
- 4 메트로미디어 임직원들이 '메트로 창간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 하고 있다.
- 5 메트로미디어가 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메트로 창간 20주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H·B·C·P 강점으로 ‘메트로 웨이’ 걸을 것”

(인적자원·브랜드·채널·열정)

### 인사말 및 비전 설명

####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는 3일 메트로 창간 20주년을 축하하며 조직의 강점이 H(Human Resource-인적 자원)·B(Brand-브랜드 파워)·C(Channel-채널)·P(Passion-열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메트로신문 창간20주년기념 감사조찬 및 작은 음악회'에 참석한 내·외빈들에게 메트로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메트로·메트로경제를 만들어나가는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신문협회에 재가입해서 회장·부회장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미디어 업계에서 평판이 좋아졌다”며 “편집국·광고국·경영지원실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팀워크도 좋은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메트로·메트로경제의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집중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의 균형이 잘 잡혀있는 매체라는 것도 조직의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늘의 메τρό를 만든 것은 열정”이라며 “신문을 통해 뉴스를 종합적으로 보는 경험과 재미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장규 메트로 대표이사가 '메트로 창간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 및 앞으로의 비전 설명을 하고 있다.

이어 이 대표는 세상을 떠난 '굴지의 기업인'인 이근희 전 삼성전자 회장과 구분무 전 LG그룹 회장의 경영 철학을 소개하며 조직 운영 비전을 밝혔다.

그는 “이근희 전 회장께서 생전에 모든 사업은 업(業)의 본질, 즉 비즈니스의 본질과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미디어업의 본질은 네트워크다. 관계의 중심에 있는 언론은 룡린이 가능하고 기업과 독자와 윈-윈 관계를 만드는 것이 메트로의 목표”라고 했다.

또한 구분무 전 회장의 경영철학인 'LG웨이'를 소개하며 “LG가 LG웨이로 큰 흐름을 이뤘듯이 저희 메트로도 '메트로 웨이'를 가고 싶은 것이 소망”이라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메트로, 시민 출근길 지키는 사회공헌적 매체”

### 축사

#### 최선목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이순우 메트로미디어 언론윤리실천위원장

최선목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은 “메트로신문은 2002년 창간 이래 시민의 출근길을 지키며, 무료신문으로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에 힘써왔다는 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공헌적 매체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3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메트로신문 창간 20주년 기념 감사조찬 및 작은 음악회' 축사에서 “지난 2018년에는 메트로경제를 창간해 외연을 넓힌 이후 꾸준히 양질의 경제 기사를 내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메트로미디어의 가장 큰 변화와 혁신의 시기로 지난 2015년 10월 이장규 대표이사의 '뉴메트로 선언'을 꼽았다.

그는 “메트로신문은 최근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의 필요성을 다루며,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 사회의 공리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시장 경제의 발전과 자유로운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순우 메트로미디어 언론윤리실천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의 부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기업이 존재하지 않고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며 “기업



최선목 한국광고주협회장.



이순우 메트로미디어 언론윤리실천위원회 위원장.

을 잘 이끌어가고 기업이 아프지 않도록 하는 데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성장의 키를 쥐고 있는 기업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시간 메트로신문 창간 20주년 행사에 참석해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많은 외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스포츠 스타트업 육성한다...카카오 VX·상상이비즈 '맞손'  
▲ 호날두, 4경기 연속골...2위 손흥민에 한 골차 추격 /사진 뉴시스

▲ 반즈·한동희·김광현, 4월 KBO리그 MVP 각축  
▲ UEFA, 리 추가 제재...내년 여름까지 국제대회 출전 금지



▲ '복귀 임박' 류현진, 8일 트리플A 재할 등판  
▲ '선배님 기록 깨겠다' 약속지킨 손흥민...차범넘어 전설됐다 /사진 뉴시스